

[전라도]



(36) 안준 前 광주시교육감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무안 봉탄 명산

“우연히 수강한 연수 덕에 10년 빨리 교장 승진”

“다른 교사보다 10여년 빠르게 교장으로 승진하고 광주시 교육청 첫 민선 교육감이 된 것은 행운 때문이었어요. 우연히 받은 인구요육 연수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2대와 3대(민선)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안준(73) 축호학원 이사장의 회고다.

안 전 교육감은 나주교육청 중등장학사로 근무하던 1975년 교장으로 승진했다. 나이는 42세. 당시 대부분 교장 승진자가 55세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빠른 승진이었다.

“나주교육청 근무할 때였어요. 당시 광주에서 출퇴근을 했지요. 그런데 1975년 정월에 인구요육 연수를 받으라는 공문이 왔어요. 당시에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적 운동이 벌어지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했지요. 추운 겨울에 나주까지 출퇴근하는 것보다 교육장소인 수창초등학교까지 집인 농성동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연수가 결국은 그의 교장 승진을 빠르게 했다. “10일간의 연수가 끝나면서 받은 제 평점은 99점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3월 문교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승진평점을 계산하는데 (교장)자격연수 15점, 일반연수 15점을 반영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반연수에 제가 1월에 받은 인구요육 연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당시 신안 하의도 등에서 1년 근무하던 평점 3점을 주던 때였다. 그런데 3점짜리 근무지에서는 3년 이상 근무 못하던 것이 관례. 따라서 15점은 5년 정도 복지를 떠돌아야 받을 수 있는 점수였던 것이다.

“당시 42세에 교장 되고나니

누가 뒤 봐준다고 오해 받기도”

“교장 근무시 평점도 좋은 상황에서 일반연수 점수까지 15점이 되니 교장 승진 서열이 앞설 수 밖에 없었지요. 당연히 동료보다 10년 정도 빨리 교장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으로 늦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더 빨리 교장이 된 것이지요.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은 누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 했어요”

안 전 교육감은 1933년 보성군 봉래면에서 5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봉래·율어·문덕면 등 당시 보성군 북구 관내 4개 면을 관할하는 봉래금융조합(농협의 전신)에 근무했기에 교육에 대한 열정도 어느 누구보다 강해 중등학교는 고향을 떠나 유학했다.

하지만 그가 15세인 1948년 ‘10·19 사건’(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나면서 중학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2~3년 늦어졌다.

“당시 여수, 순천, 보성 등은 전정거나 다름없었어요. 학교를 갈래야 갈 수도 없었고 부모님이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앉아서 한문공부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안 전 교육감은 보성중과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



약력

- ▲1933년 보성군 봉래면 출생
- ▲광주교 광주시범학교 졸업
- ▲광주시교육청 학무국장
- ▲2, 3대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 ▲축호학원 이사장

사범학교 수학과에 들어갔다.

“특별히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당시 광주사범 내에는 수학·과학·예체능과만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역사·국문·사회과는 없었어요. 재주 없는 예체능을 선택할 수는 없어서 수학을 선택한 것이지요”

안 전 교육감은 25세 때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성북초교로 발령을 받았다.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받고 초등학교로 간 것이다. 중등학교에 자리가 없었던 때문이었다.

안 전 교육감은 2년 후 합평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곳에서 5·16 혁명을 겪은 직후 군대에 갔다. 당시 학생에게는 1년6개월, 교사에게는 1년 동안만 복무하도록 혜택을 줘 1년 만에 고향인 보성 봉래중학교(당시 보성북중)로 다시 부임했다.

“당시에도 부모님은 봉래에 계셨고 부모님이 자식을 데리



지난 1991년 당시 안준 광주시교육감이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찾아 위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고 살고 싶어하셨기에 자원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불효를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남이었으니 부모님이 더욱 같이 있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안 전 교육감은 다시 전남여중으로 발령받아 광주로 왔으나 4년 만에 교장으로 승진, 다시 봉래중학교를 택했다. 역시 같은 이유였다.

안 전 교육감은 이때도 모든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교육을 위해서 자식은 광주에 두라고 하는 친구도 많았지만 거부했다.

“나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아이는 도시에 두고 온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교장으로 봉래중학교 부임할 때 마침 첫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 봉래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첫 교장 부임지 영광 대마중서

너무 젊어 ‘교장오빠’ 소리 들어”

안 전 교육감은 이후 나주교육청 중등장학사로 발령을 받고 이곳에서 교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첫 교장 부임지는 남녀공학인 영광 대마중학교였다. 교감은 물론 일반 교사들도 상당수는 당시 안 교장보다 연상이었다.

“십지어는 여고생들한테 ‘교장 오빠’란 소리를 들어요”

안 전 교육감은 2년 후 서울사대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은 뒤 나주 봉황중학교에서 1년 근무했다. 또 이후에는 전남도교육청 수학과 장학사를 3년 하다가 장학관으로 승진했으며 전남도교육청 과학기술과장과 나주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으로 분리됐다. 안종일씨가 광주시교육청 초대(관선) 교육감이 되고 그는 학무국장이 됐다. 교육감 승진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위정락기자 jrwi@kwangju.co.kr

1900년대 봉탄 포구 일본인 거주 뱀장어·굴양식 등 ‘황금어장’ 형성

영산강 하류로 가면 사호(沙湖)와 곡강(曲江)에 이어, 나주와 무안에서 모두 ‘봉탄’이라 부르는 구간에 이른다. 봉탄은 영산강 수로에서 물살이 센 곳으로 ‘굼(큰)어울’이 뱀장어(鮫)로 변했다. 왕건이 후백제를 이기면서 전설화 됐을 개연성이 높다.

1900년대 봉탄포구에는 조선인 객주와 뱀장어잡이, 굴양식업, 농업에 일한 일본인이 거주했다. 1910년대 명산에는 다케시타(竹下剛太郎)가 176번지에서 어업조합을 경영했고, 선창은 177번지 일대로 아메미야(雨宮仁作) 집 바로 북동쪽에 있었다. 시가미(鹿間友治)는 174번지에서 100평 규모의 장어 통조림공장과 장어 요리집을 겸했다. 이시모리(石森敬治)는 굴을 따고, 일로 의산리에서 온 시바다(柴田幸助)는 기와를 구웠다.

1920년대 안강망 어선 20여척이 있었고, 속성시진 해파리 수익은 연 3만엔정도였다. 1928년 통계를 보면 수산업자가 87호 154명이고, 소유 어선은 35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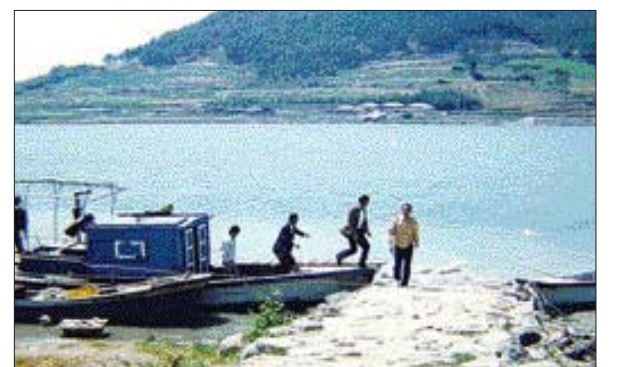
1934년 19번지에 명산 간이역으로 설치되고, 이듬해까지 머리 남쪽에 120ha 규모의 영화 제2농장이 완성되면서 이주민이 들어와 역전취락이 형성됐다.

선창 길은 나무 이용객과 장어운반 손수레로 붐볐다. 밀양박씨 선산인 180번지에는 일본 신사(神社), 153번지에는 소학교까지 설치됐다. 강 건너 나주 동강에는 와카야마(和歌山)현 출신 이세게(井關實三)가 거주하면서 나무와 근처 농장을 운영했다.

광복직후 한 해 동안 명산역에서 반출된 수산물만 해파리 15만근, 장어통조림 2만 개, 생어 1만근이었다. 1955년 명산리 영산장어업조합에는 120명의 조합원이 해파리, 송어, 장어를 잡기 위해 70여 척의 어선과 운반선 7척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판대 부금이 3만940원을 기록했다.

1960년대에도 장어를 비롯하여 송어, 망둥어, 쟁뿔어, 복어, 새우, 맛, 굴, 고막, 해파리가 서울과 광주로 판매됐다. 임방남씨는 장어새끼를 취급했다. 1970년대까지 5톤급 어선 29척, 1.5톤급 380척의 배가 출입했으며, 하루 어획량은 계와 맛 트럭 2대 분, 장어 0.5톤, 잡어는 10톤에 달했다. 3~5월간 송어는 최고 5톤, 장어는 8톤 정도가 잡혔다.

하루 500여명이 이용했던 나무는 1994년 길이 680m의 봉탄대교가 준공되면서 기능이 상실됐고, 1960년대 719~4번지에 새로 지은 명산역도 2002년 4월 사라졌다. 근처 식당에서 옛 명물 명산(明山)장어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1959년 봉탄나무 전경(사진 위·정찬석씨 제공). 1986년 나주 동강 쪽에서 본 봉탄나무(사진 아래)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위원장)

● 위성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번 60번, 나주 60번, 사남권 59번, 담양 42번

다시 시청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입니다

CBS 광주 CBS TV

영·혼을 사로잡는 힘

TV강연 10월 1시 20분

TV강연 10월 3시 20분

10월 1일 1시 20분: 최정호, 10월 2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3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4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5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6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7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8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9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10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11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12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13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14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15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16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17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18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19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20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21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22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23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24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25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26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27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28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29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30일 1시 20분: 김성민, 10월 31일 1시 20분: 박정호

10월 1일 3시 20분: 최정호, 10월 2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3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4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5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6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7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8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9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10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11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12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13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14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15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16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17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18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19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20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21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22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23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24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25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26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27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28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29일 3시 20분: 박정호, 10월 30일 3시 20분: 김성민, 10월 31일 3시 20분: 박정호